

제 108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法人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08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枅] ① 遲 ② 漸 ③ 瞻 ④ 喃
2. [諷] ① 啐 ② 贅 ③ 鞦 ④ 嘴
3. [杲] ① 柴 ② 樞 ③ 摯 ④ 苡
4. [闇] ① 赭 ② 諂 ③ 苾 ④ 爹
5. [剽] ① 晡 ② 匏 ③ 剿 ④ 飈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羸] ① 誅 ② 釐 ③ 泣 ④ 醜
7. [馴] ① 諄 ② 徇 ③ 錚 ④ 皴
8. [糶] ① 濡 ② 猷 ③ 墳 ④ 袖
9. [哮] ① 數 ② 肴 ③ 翹 ④ 驍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衢] ① 衡 ② 街 ③ 衍 ④ 衝
11. [濇] ① 湏 ② 涸 ③ 湫 ④ 泥
12. [雕] ① 鏤 ② 縷 ③ 摟 ④ 褸
13. [繆] ① 縞 ② 緇 ③ 綢 ④ 縉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裹 ② 裂 ③ 裔 ④ 囊
15. ① 瑁 ② 斑 ③ 瑣 ④ 璉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嗤侮 : 치모 ② 饌盒 : 찬합
 ③ 樓櫓 : 누노 ④ 餉穀 : 향곡
17. ① 惘然 : 추연 ② 箝口 : 검구
 ③ 明紬 : 명주 ④ 翅果 : 지과
18. ① 供饋 : 공궤 ② 城堞 : 성업
 ③ 旗旒 : 기류 ④ 白蠟 : 백랍
19. ① 微恙 : 미고 ② 咐囑 : 부촉
 ③ 賄賂 : 회뢰 ④ 塑像 : 소상
20. ① 養漱 : 양수 ② 宸念 : 진념
 ③ 玉頰 : 옥협 ④ 喘促 : 천촉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형은 나무로 장난감 배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다.
 ① 瀝靑 ② 鞿靑 ③ 瀝淸 ④ 鞿淸
22.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식욕이 증진한다.
 ① 活撥 ② 活醱 ③ 活潑 ④ 活跋
23. 냄비 뚜껑에 수증기가 맺혀 맑은 [증류수]가 한 줌 정도 고여 있었다.
 ① 甌溜水 ② 甌瀏水 ③ 蒸瀏水 ④ 蒸溜水
24. [순라군]인 남편은 달이 저서야 돌아왔다.
 ① 循喇軍 ② 巡邏軍 ③ 巡喇軍 ④ 循邏軍
25. 그의 손이 [수전증]에 걸린 것처럼 떨렸다.
 ① 手癲症 ② 手氈症 ③ 手顫症 ④ 手佺症
26. 누이는 본시 고민이나 [오뇌]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기질이였다.
 ① 懊惱 ② 誤腦 ③ 懊腦 ④ 澳惱
27. 오늘로 [기년복]의 복을 벗었다.
 ① 紀年服 ② 碁年服 ③ 畸年服 ④ 祈年服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마음이 언짢아지면서 바다 밑 같이 []되어 왔다.
 ① 瑕疵 ② 朽滅 ③ 沈澱 ④ 剝製
29. 유리 같은 양장판에 빨간 []을 깔아 놓은 거실은 매우 고급스럽게 보였다.
 ① 茵蔯 ② 銷沈 ③ 寢褥 ④ 絨緞
30. 광고주는 자신들이 지출한 광고비를 소비자들에게 []한다.
 ① 逋亡 ② 旱魃 ③ 轉嫁 ④ 末梢
31. 의장의 발언은 의원들의 [] 소리에 파묻혀 끝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① 擲揄 ② 不朽 ③ 鑿器 ④ 盜癖
32. 그 왕은 용기가 있고 마음이 곧으나 민심을 []할 줄을 몰랐다.
 ① 蒐攬 ② 修攬 ③ 受攬 ④ 收攬
33. 풍수와 []의 성행은 왕조 교체기에 주로 일어난다.
 ① 蛟螭 ② 嬌媚 ③ 圖讖 ④ 柳絮

34. 문화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므로 모든 나라의 국민은 어느 문화든 []할 권리가 있다.

- ① 均霑 ② 蛇蝎 ③ 短簫 ④ 輻射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아름다운 꽃망울. 사물의 정수.

- ① 曼壽 ② 菁華 ③ 眞荏 ④ 煩冗

36.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 버림.

- ① 粢盛 ② 詛囑 ③ 欠逋 ④ 摧碎

37.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줄임.

- ① 土俑 ② 俵災 ③ 淹滯 ④ 盥洗

38. 깊숙하고 고요함.

- ① 淵藪 ② 淵源 ③ 淵邃 ④ 潭淵

39. 고삐 끈.

- ① 結紐 ② 鐘紐 ③ 轡繫 ④ 轡紐

40. 화로에 썩워 놓고 그 위에 젖은 기저귀나 옷을 얹어 말리도록 만든 기구.

- ① 焙籠 ② 膨脹 ③ 喀痰 ④ 摹印

41. 일의 시초와 끝.

- ① 令胤 ② 檣檀 ③ 端倪 ④ 潺湲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弊袍破笠]

- ① 초라한 차림새.
② 먼 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
③ 성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헛되이 하려 하는 것.
④ 인재를 등용할 때 문벌을 가리지 아니함.

43. [罄竭]

- ① 충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바침.
② 돈이나 물건 따위가 바닥이 나 다 없어짐.
③ 한곳으로 많이 몰려듦.
④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44. [爰居爰處]

- 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냄.
②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
③ 도를 깨달아 의혹이 일시에 없어짐.
④ 여기저기 옮겨 삶.

45. [邯鄲之夢]

- ①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
②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③ 견문이 좁아 세상일을 모르고 저 혼자 득의양양함.
④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음.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나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라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 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 하나이다

《孟子》

46. ㉠~㉣의 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생각하다 ② ㉡: 그만두다
③ ㉢: 어찌 ④ ㉣: 양육하다

47.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容忍 ② 羅網 ③ 暴棄 ④ 救援

48. ㉤~㉧ 중 動詞로 쓰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49. ㉦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 ① 凶年 ② 災殃 ③ 事故 ④ 苦生

50. 윗글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선비는 물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② 물질적 빈곤이 정신적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엄격한 형벌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媾 ()
- 주2. 瘻 ()
- 주3. 霍 ()
- 주4. 漬 ()
- 주5. 崧 ()
- 주6. 幌 ()
- 주7. 撚 ()
- 주8. 藕 ()
- 주9. 吮 ()
- 주10. 絳 ()
- 주11. 糯 ()
- 주12. 迤 ()
- 주13. 剃 ()
- 주14. 翮 ()
- 주15. 媯 ()
- 주16. 蹕 ()
- 주17. 豁 ()
- 주18. 竇 ()
- 주19. 亳 ()
- 주20. 劬 ()
- 주21. 幫 ()
- 주22. 勸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匍 ()
- 주24. 臧 ()
- 주25. 饗 ()
- 주26. 頰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아지랑이 람 ()
- 주28. 꾸짖을 초 ()
- 주29. 말더듬을 흘 ()
- 주30. 창 삭 ()
- 주31. 주름살 추 ()

- 주32. 박달 간 ()
- 주33. 성실할 각 ()
- 주34. 공경할 웅 ()
- 주35. 함부로 도 ()
- 주36. 속눈썹 칩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辟	掉	稠	訥	芟	掖	獍	恤
------	---	---	---	---	---	---	---	---

- 주37. ○座 粘○ ○密 ()
- 주38. ○命 ○世 ○除 ()
- 주39. 撫○ ○民 賑○ ()
- 주40. ○毒 ○猛 ○慝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巍然 ()
- 주42. 嗽咳 ()
- 주43. 自縊 ()
- 주44. 禪榻 ()
- 주45. 齟齬 ()
- 주46. 揚袂 ()
- 주47. 顛頊 ()
- 주48. 鈇鉞 ()
- 주49. 蹄齧 ()
- 주50. 脯醢 ()
- 주51. 蠲滅 ()
- 주52. 鏐鎚 ()
- 주53. 鐫琢 ()
- 주54. 鰓鬣 ()
- 주55. 蛄菜 ()
- 주56. 賡歌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그의 [집요]한 추궁에 나는 사실을 털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
- 주58. [성학집요]는 율곡 이이가 제왕의 학문을 위하여 지은 책이다. ()
- 주59. [극구광음]이 짧고 짧으니 나태하지 말고 학문에 집중하자. ()
- 주60. 선생님은 선물을 [극구] 사양하셨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空冊에 그어진 掛線에 맞춰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다. (→)
- 주62. 琉璃알처럼 맑은 初가을의 透明한 하늘과 靱爽한 바람을 나는 좋아한다. (→)
- 주63. 그녀가 입은 韓服에서 慇懃하고 淸蕉한 아름다움이 풍긴다. (→)
- 주64. 깊은 산이 주는 靜蜜과 고요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平安을 맛보았다. (→)
- 주65. 길모습만 보고 사람을 그렇게 适視해서 는 안 된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화훼 원예] : 관상용 화초를 심어 기르는 원예. ()
- 주67. [적로] : 황후가 타는 수레. ()
- 주68. [현혹] :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림. ()
- 주69. [압설] :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예의가 없음. ()
- 주70. [시호] : 제왕이나 재상, 유현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 ()
- 주71. [변용] : 기뻐서 손뼉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춤. ()
- 주72. [패표] : 쪽박을 찬다는 뜻으로, 빌어먹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73. [감란] :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킴. ()
- 주74. [치수] : 아주 가벼운 무게를 이르는 말. ()
- 주75. [조정] : 정해진 거리에서 보트를 저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광화문은 무지개형으로 된 세 개의 [홍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주77. 경주 [석굴암]의 놀라운 정교함과 심오한 균형미에 감탄할 따름이다. ()
- 주78. 옥외 전광판 때문에 대도시의 야경은 더욱 [현란]해졌다. ()
- 주79. 간호사는 [붕대]를 환자의 팔뚝에 휘감았다. ()
- 주80.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속이 달아서 몹시 괴로워했다. ()
- 주81. [변려문]은 중국의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로, 문장 전편이 대구로 구성되어 읽는 이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
- 주82.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한다. ()
- 주83. 그의 글은 너무 [난삽]하여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다. ()
- 주84. 그 당시 농민들은 지주에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 ()
- 주85. 선장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해서 선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구명동의], 장갑 등을 착용하게 하였다. ()
- 주86. 그들 부부는 중년이 넘어서 [원진살]이 끼었다. ()
- 주87. 가정용 전기세탁기도 [교반기]의 일종이다. ()
- 주88. 구성원 간의 불화와 [알력]이 해소되어야 단체는 발전할 수 있다. ()
- 주89. [감람유]는 식용 또는 약용하며 비누, 화장품 따위의 원료로 쓰인다. ()
- 주90. 남자가 [수염]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니 걱정하지 마라.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阿諛○奪]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남의 지위를 빼앗음. ()
- 주92. [○解文字] 글자나 겨우 볼 정도로 무식을 면함. ()
- 주93. [暴○天物]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 버리거나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림. ()
- 주94. [橫說○說]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
- 주95. [堤○蟻穴] 소홀히 한 작은 일이 큰 화를 불러옴을 이르는 말. ()
- 주96. [明○皓齒] 미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
- 주97. [倜儻不○]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음. ()
- 주98. [暗中○索]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
- 주99. [○化爲枳]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 ()
- 주100.[耕田○井]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질서 있게 계획대로 진행된 올림픽 개막식은 그야말로 [阿鼻叫喚]이었다. ()
- 주102. 무심한 듯 [彫蟲篆刻]한 조각품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
- 주103. 세월이 흐르면서 단어의 본의가 바뀌어 쓰이는 일은 [破天荒]의 상태라 할 수 있다. ()
- 주104. 그들은 [東塗西抹]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바빴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그는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
- 주106. [으르렁대는 호랑이가 개필에 빠지듯이] 그는 큰소리만 쳤지 결국 일을 이루지 못했다. ()
- 주107.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온 그들은 몹시 분해하며 서로 [이를 갈고 팔을 걷어붙이며] 다투었다. ()
- 주108. 그 약만 먹는다면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듯이] 병이 말끔히 나을 듯했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鳧燕難明 ()
- 주110. 勺水不入 ()
- 주111. 龜背刮毛 ()
- 주112. 覆車之戒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才食一匙 不救腹飢 ()
- 주114. 天雖崩 牛出有穴 ()
- 주115. 附肝 附念通 ()
- 주116. 未有瓦雀 虛過搗舍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已以雖見須也而之矣嘗何后焉

- 주117. 吾○三仕 三○遂於君 《史記》
(,)
- 주118. 宜兄宜弟而○可○教國人 《大學》
(,)
- 주119. 學不可以○青取之於藍○青於藍 《荀子》
(,)
- 주120.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
愼於言 就有道而正○可謂好學○已 《論語》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承施驛至奉郵毫止師端賓累德

- 주121.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於
○善 《大學》
(,)
- 주122. 出門如見大○使民如○大祭 《小學》
(,)
- 주123. 合抱之木 生於○末 九層之臺 起於
○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
(,)
- 주124. ○之流行 速於置○而傳令 《孟子》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주125. [之人而而越耶殺父忘] 《十八史略》
국역: 너는 월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
()
- 주126. [虧沛退節顛義匪廉] 《千字文》
국역: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물러남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지러뜨릴 수 없다.
()
- 주127. 多聞闕疑 [則尤餘言愼寡其] 《論語》
국역: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은 제쳐놓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

- 주128. 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學往聖來開繼] 《童蒙先習》
국역: 시서를 정리하고, 예악을 정하고, 주역을 해설하고, 춘추를 지어서 지난날의 성현을 계승하고 후학을 열었다.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 주129.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論語》
()
- 주130. [天作孽 猶可違 自作孽 不可活] 《孟子》
()
- 주131.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歸去來辭》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睡起> -徐居正
簾影深深轉 ㉠하향續續來
夢回高枕上 ㉡桐葉雨聲催

(나) <絕命詩> -黃玟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침륜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다) <述志> -吉再
臨溪㉤모옥獨閑居 月白風清興有餘
㉥外客不來山鳥語 移床竹塢臥看書

- 주132.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3. ㉡을 국역하시오.
()
- 주134. (가)의 운자를 모두 찾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5.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6. ㉣을 국역하시오.
()
- 주13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8. ㉥을 국역하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歸去來兮여 請息交以絕游라
 世與我而相違하니 ㉠復駕言兮焉求리오
 悅親戚之情話하고 樂琴書以消憂로다
 農人告余以春及하니 將有事于西疇로다
 或命巾車하고 或棹孤舟하여
 既窈窕以㉡심학하고 亦崎嶇而經丘하니
 木欣欣以向榮하고 ㉢泉涓涓而始流라
 羨萬物之得時하고 感吾生之行休로다
 已矣乎라 寓形宇內復幾時오
 曷不委心任去留하고 胡爲乎㉣황황欲何之오
 富貴는 非吾願이요 ㉤제향은 不可期라
 懷良辰以孤往하고 或植杖而耘耔라
 登東臯以舒嘯하고 ㉥臨清流而賦詩라
 聊乘化以歸盡하니 樂夫天命復奚疑아

《古文眞寶》

- 주139. ㉠을 국역하시오.
 ()
- 주14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1. ㉢을 국역하시오.
 ()
- 주142.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3.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4. ㉥을 국역하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星湖僊說者는 ㉠星湖翁之戲筆也라 翁之
 作是說也는 何意오 直無意아 無意면 ㉡奚其
 有此哉오 翁은 乃優閑者也라 讀書之暇에
 應世遁俗하여 或得之傳記하고 得之㉢자집
 하고 得之詩歌하고 得之傳聞하고 得之談諧
 하여 或可笑可喜하여 可以存閱을 隨手亂
 錄하여 不覺其至於多積이라 始也엔 爲其
 挑忘錄之卷하고 既又爲之目하여 列於端하
 고 目又不可以徧閱일새 乃分門類入하여
 遂成㉣卷帙하고 又不可無名일새 名之以僊
 說은 勢也요 非意之也로다 翁이 ㉤窮經二
 十年에 凡見解聖賢遺意하여 各有成說하고
 又喜著書하여 其寓物酬人序記論說은 別
 有采輯호되 如僊說者가 不敢載之向之數
 者는 則其爲無用之冗言이 定矣라 鄙諺에
 云 ㉦我食屬厭하나 棄將可惜이라하니 此僊
 說所以起也로다

〈星湖僊說序〉

- 주145. ㉠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명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6. 문맥상 ㉡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漢字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
- 주14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8. ㉣의 독음을 쓰시오.
 ()
- 주149. ㉤의 뜻을 쓰시오.
 ()
- 주150. ㉦과 뜻이 통하는 2음절의 한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2. 6. 16. (목)

결과 조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08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①	11	④	16	③	21	①	26	①	31	①	36	③	41	③	46	①
2	③	7	④	12	①	17	④	22	③	27	②	32	④	37	②	42	①	47	②
3	①	8	④	13	③	18	②	23	④	28	③	33	③	38	③	43	②	48	②
4	②	9	③	14	④	19	①	24	②	29	④	34	①	39	④	44	④	49	①
5	④	10	②	15	②	20	②	25	③	30	③	35	②	40	①	45	①	50	③

■ 주관식 I ■

주1	갈볼 설	주21	결들 방	주41	외연	주61	掛→郢	주81	駢儷文
주2	병들 막	주22	공적/사업 적	주42	수해	주62	鋌→颯	주82	臍臍
주3	빠를/갑자기 곱	주23	西	주43	자액	주63	蕉→楚	주83	難澁
주4	담글 지	주24	臣	주44	선탐	주64	蜜→謐	주84	搾取
주5	우뚝솟을 승	주25	食	주45	저어	주65	适→愬	주85	救命胴衣
주6	휘장 황	주26	火	주46	양메	주66	花卉園藝	주86	元嗔煞
주7	비틀 년	주27	嵐	주47	전욱	주67	翟輅	주87	攪拌機
주8	연뿌리 우	주28	誚	주48	담총	주68	眩惑	주88	軋轢
주9	빨/훤을 연	주29	吃	주49	제설	주69	狎褻	주89	橄欖油
주10	급박할 구	주30	槩	주50	포혜	주70	諡號	주90	鬚髯
주11	찰벼 나	주31	皺	주51	견감	주71	扞踊	주91	傾
주12	비스듬할 이	주32	桿	주52	형추	주72	佩瓢	주92	稍
주13	머리깎을 체	주33	慤	주53	전탁	주73	戡亂	주93	殄
주14	자랑할 후	주34	顛	주54	기렵	주74	錙銖	주94	豎/豎
주15	상긋웃을 언	주35	叨	주55	침채	주75	漕艇	주95	潰
주16	길치울 필	주36	睫	주56	갱가	주76	虹霓門	주96	眸
주17	소통할 활	주37	稠	주57	執拗	주77	石窟庵	주97	羈
주18	구멍 두	주38	辟	주58	聖學輯要	주78	絢爛	주98	摸
주19	땅이름 박	주39	恤	주59	隙駒光陰	주79	縹帶	주99	橘
주20	수고로울 구	주40	孿	주60	極口	주80	綻露	주100	鑿

제108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后 , 以	주135	沈淪
주102	X	주119	已 , 而	주136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주103	X	주120	焉 , 也	주137	茅屋
주104	O	주121	止 , 至	주138	바깥 손님 오지 않고 산새들만 지저귀니
주105	滿身瘡痍	주122	賓 , 承	주139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주106	咆虎陷浦	주123	毫 , 累	주140	尋壑
주107	切齒扼腕	주124	德 , 郵	주141	샘물은 졸졸 바야흐로 흐른다.
주108	雲捲天晴	주125	而忘越人之殺而父耶	주142	遑遑
주109	진실을 분간하기 어려움.	주126	節義廉退 顛沛匪虧	주143	帝鄉
주110	음식을 조금도 먹지 못함.	주127	慎言其餘則寡尤	주144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
주111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함.	주128	繼往聖開來學	주145	李漢
주112	남의 실패를 거울삼아 자기를 경계함.	주129	요리를 잘못하였거든 먹지 않으시고	주146	何
주113	첫술에 배부르랴.	주130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거니와,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하여 살 수 없다.	주147	子集
주11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주131	무릎을 용납할 만한 곳이 편안하기 쉬움을 알았노라.	주148	권질
주115	간에 붙었다 쓸개(염통)에 붙었다 한다.	주132	荷香	주149	경서를 연구함.
주116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그냥) 지나랴.	주133	오동잎이 빗소리를 재촉하도다. /오동잎에 빗소리가 재촉하도다.	주150	鷄肋
주117	嘗 , 見	주134	來 , 催		